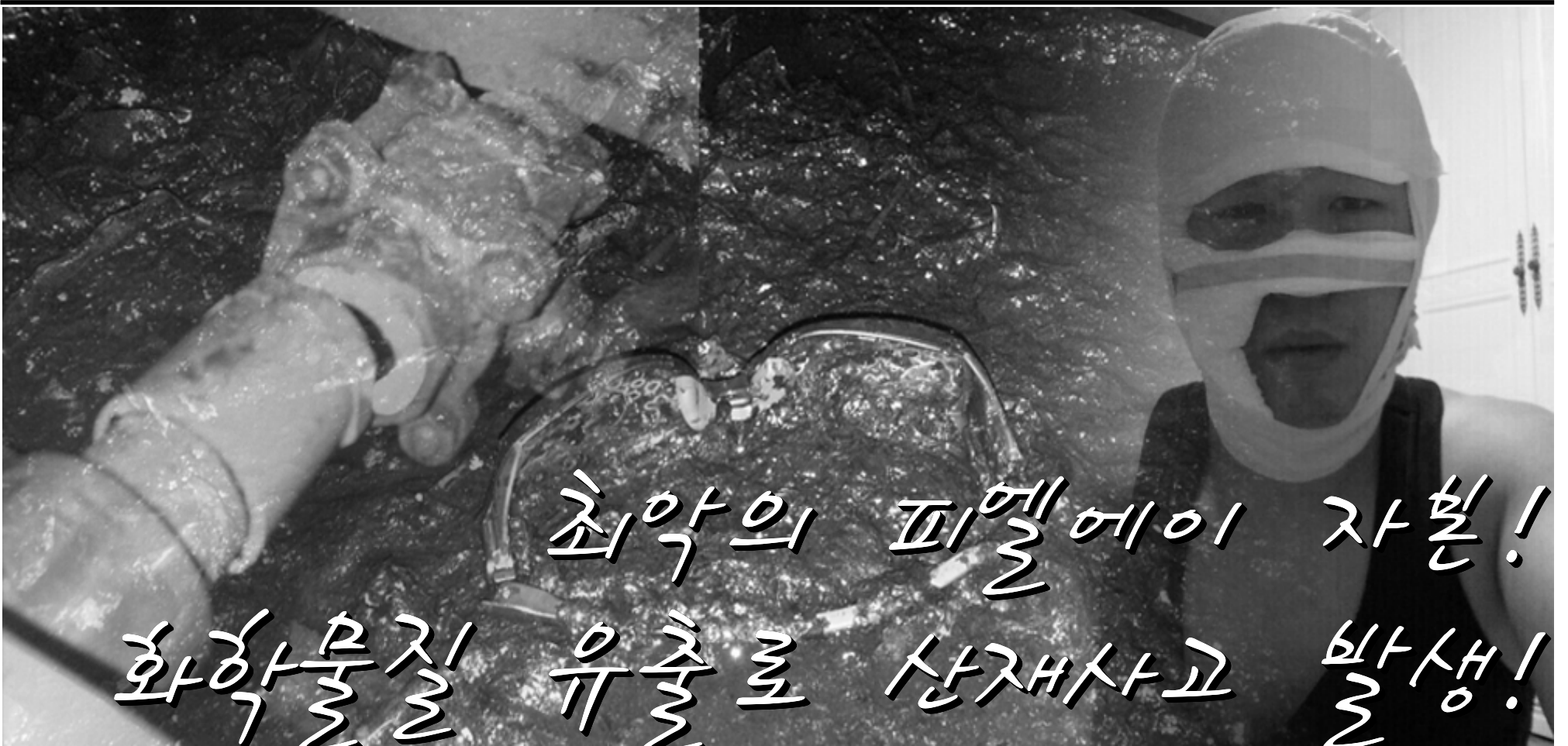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5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5월 1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최악의 노동환경이
만들어낸
최악의 산재사고

모두가 안전, 안전, 안전을 외치는데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던졌다. “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내팽개쳐져야 하는가?” “자본의 이윤 앞에서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은 쓸데 없는 비용에 불과한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본의 이윤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피엘에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고 현장

14일 밤 9시경 피엘에이 작업장 지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LCD 재생과정에 사용하는 화학 약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내려가 화학약품이 담긴 탱크의 밸브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 날도 한 조합원이 밸브를 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가 노후한 밸브 이음새가 터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화학약품이 오른쪽 팔과 얼굴, 머리까지 더 덮치면서 화상을 입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지하의 소리는 작업장까지 들리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힘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나야 했다.

사고 후 노조, 지부, 지회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지하 사고현장을 확인한 간부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참담한 마음까지 들었다. 아무런 조명도 없이 어두운 공간에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바닥은 재생작업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쌓여 매우 미끄러웠다. 악취도 빠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작업 중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게 유증기가 발생한다. 결정적으로 배관 이음새는 노후되어 있었다. 이런데도 피엘에이 자본은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한 것이 없다.

쓸데없는 곳에 돈쓰지 말고, 노동환경 개선에 신경써라

피엘에이 자본은 지금까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노동조합의 양보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올해 초에도 휴, 폐업 운운하며 많은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엘에이가 어려워진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설비 투자라도 한 적이 있나? 그랬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피엘에이 자본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피엘에이 규탄한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불붙는 노조파괴 분쇄 투쟁

노조파괴 분쇄 투쟁이 새로운 형태로 활력을 보이고 있다. 현장과 거리에서 검찰의 편파, 축소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주 처벌과 금속노조 재조직화를 위한 노조파괴 사업장의 투쟁은 계속되며 더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 노조파괴 사업장 조합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힘차게 출근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조파괴에 대한 공동 대응의 차원에서 4월부터 공동 출근투쟁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격주 금요일 아침 부강공단에서 컨티넨탈, 보쉬전장 조합원들을 만난다.

보쉬전장지회는 12일부터 금속노조 재조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100일간의 108배에 돌입했다. 매일 아침 조합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선전전과 더불어 108배를 진행한다. 108배에는 이화운 지회장과 정근원 해고자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투쟁 기운이 매주 월요일 19시 대전 검찰청 앞으로 모인다. 그동안 노조파괴 싸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규탄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주부터는 촛불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통해 시민들도 만나고 있다.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은 점점 더 확대시킬 예정이다.



유성 5.18 직장폐쇄, 벌써 3년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5.18 직장폐쇄가 3주년이 되었다. 2011년 노조파괴의 신호탄이었던 불법 직장폐쇄날인 5월 18일을 맞이하여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옥천 철탑 농성장에 모였다.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그 때의 일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지회 조합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반성하고 결의했다. 3년 전, 직장폐쇄 이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며 투쟁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적게나마 임금도 나오고 살만 하다고 생각하고 투쟁을 제대로 벌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가열찬 투쟁을 벌이자고 다짐했다.

유성은 노조파괴를 넘어 승리로 가고 있다. 현장 조직력도 많이 회복했고 법적다툼도 문제없이 승리하고 있다. 이제 승리를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것만 남았다. 지금까지 버티고 쌓아온 의지를 모아 반드시 함께 이기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자결

염호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 17일 강릉에서 자결했다. 염 분회장의 시신은 현지 주민이 17일 오후 강릉시 정동진 곰두리 연수원 뒤 공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발견했다. 차 안에 유서와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고 한다.

유족인 아버지와 노조는 서울에서 장례 등 일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고인을 18일 새벽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2층 5호실로 옮겼다.

그러나 18일 19시경 경찰이 기동대를 앞세워 서울의료원에 들이닥쳤다. 조문중이던 조합원이 밀고 들어오는 경찰을 막아섰지만 최루액을 난사하며 진입하는 경찰 기동대를 막기엔 중과부적이었다. 경찰의 시신 탈취를 막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행자와 부상자도 발생했다.

한 노조 간부는 “17일 밤 늦게 삼성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염 분회장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한다. 그 후부터 부산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염 분회장의 유족들은 17일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키로 합의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고인의 부친을 대동해 무리한 진입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9일 전조합원 파업지침을 내리고 15시 강남 삼성전자 본관 앞으로 집결해 집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5.12 대전검찰청 촛불집회, 거리행진>



<5.16 노조파괴 공동 출근투쟁>



<5.18 코스모링크 체육대회>



<5.18 코스모링크 체육대회>